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Library

노영희 (Younghee Noh)*

노지윤 (Ji-Yoon Ro)**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에 앞서,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최근 도서관의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친화형 공간, 노인복지·요양서비스·귀농 생활 등과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

ABSTRACT

Prior to the concrete and practical use of closed school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rends in the use of closed schools, and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the library's use of closed schools based on the status of closed schools and use cases.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 building of libraries using closed schools can be reborn as librar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general public libraries, such as providing complex cultural spaces, eco-friendly spaces, and local community place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uture direction of library closure is suggested as follows: Provide local economic contribution and local revitalization opportunities, life-friendly and friendly space for local residents, recycling space linked with elderly welfare, care service, urban to rural Immigrants, creation of added value and creation of local business using closed schools, environment-friendly space, recycling as a complex community center, recycled into a space that meets and complements local needs.

키워드: 도서관, 폐교, 폐교 활용,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 도서관과 폐교
library, closed school,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utilization plan,
library and closed school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rojyliv@gmail.com)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8년 11월 10일 ■ 최초심사일자: 2018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8년 12월 20일
■ 정보관리학회지, 35(4), 77-106, 2018.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4.077]

1. 서론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인구의 분포 격차, 신설 대체 학교 이전,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인구수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폐교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활용 폐교의 관리·유지비용만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폐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화된 활용계획의 부재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교육 인프라·유희시설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폐교 시설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폐교 현황과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서비스함으로써 폐교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 또한 폐교재산활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폐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폐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를 주원인으로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추진에 따른 도·농간의 불균형 성장,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재정·운영의 문제, 정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 등 다양한 간접적 원인으로 폐교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태도와 더불어 각 교육행정 당국의 자체 활용계획, 효과적인 매각과 임대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농현상, 인

구감소,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 등으로 폐교가 계속적으로 속출하면서 뚜렷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폐교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체제가 아직까지 미약함에 따라 방치된 미활용 폐교 시설과 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어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물리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폐교들의 활용실태는 대부분 자체활용을 통한 효율적 재활용보다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폐교와 같은 교육용 유희재산이 교육·문화공간적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지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방안은 다양한 분야에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적절히 활용된 폐교는 건물과 부지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자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폐교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며 지역의 문화·경제·복지 거점지역으로 성장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교 현황과 폐교 활용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확인해보고, 도서관 또는 유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폐교의 경쟁력과 강점을 확인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이 주는 이점과 시사점, 그리고 최신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의 건립 및

운용에 핵심적인 근거를 제안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인구 감소와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 등에 따라 발생·증가된 폐교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정책 및 활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유휴시설은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을 넘어 (조성찬, 2006), 경영, 사회복지, 건축, 체육, 문화·예술, 관광, 도서관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폐교의 활용성과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는 먼저 폐교자원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조정민, 신지은, 2014; 장우석, 정남수, 2013)가 수행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애 요인 파악, 활용성 제고, 개선 방안 또는 정책 과제를 제시한 연구(권영현, 이인배, 김경태, 권미정, 2012; 이화룡, 2018)가 수행되었다. 마상진(2010)은 농촌 폐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권영민과 강인철(2000)은 지방폐교시설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 폐교시설의 재활용을 제안함으로써 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 폐교의 처리가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교시설의 재활용 계획을 외부공간과 실내공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신상섭(2000)은 교육부 발표 자료에 근

거하여 통폐합 현황과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발표자료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운용실태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을 추출하여 폐교부지 및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념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폐교의 활용방안과 계획 등 실질적 적용과 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사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전영도, 2008; 김성화, 2010; 도현학, 2011; 백선헌, 2013; 오원진, 2013). 이주일과 이택호(2017)는 폐교 활용방안으로 친환경을 활용하여 학생, 대학, 기업, 그리고 가족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자연순환형 복합 체험학습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폐교의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자원 활용,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문화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폐교의 건축적·공간적 측면에서 공간 및 시설의 재활용, 공간 구성, 공간적 특성, 리모델링 요소분석 등에 관련한 연구(김윤희, 2010; 허성훈, 이종국, 2012; 변경화, 강은정, 유창균, 2015)가 수행되었다. 이웅구와 남윤철(2010)은 경남에 위치한 폐교시설을 양로시설 '성로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조사하여, 폐교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평면을 개발하였다. 김재영과 이종국(2012)은 완전의존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의 폐교 시설 재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는 공간계획 프로토타입을 활용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김홍열과 임영환(2016)은 폐교시설의 정의

와 유형, 폐교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교육정책과 기숙형 학교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폐교시설을 기숙형중학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사 연구로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대안 학교를 설계한 연구(임환수, 2005)가 있다.

이외에도 폐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구도심, 농촌 등과 같이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연구되거나, 폐교의 지역커뮤니티 중심, 지역과 공공성 등의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 소개, 또는 한국과 일본의 폐교 현황, 활용 유형, 정책 등에 대한 비교 연구(김홍기, 2017; 박의창, 2018) 등에 대한 연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국내의 폐교의 현황, 관련 법, 활용 절차와 더불어 도서관과 유사 기관의 폐교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도서관계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점에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생활 SOC(에스오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토목 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대신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변화한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인프라 투자로 경기 침체 국면을 돌파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도로·철도와 같은 공간·개발 중심의 기존 SOC와 별도로 박물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재분류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된 요즘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 '생활형 SOC'는 필수가 됐다"고 강조하였다(중앙일보, 2018).

이처럼 2019년 관련 예산 규모를 8조7000원으로 2018년(5조8000억원)보다 50%를 확대함으로써 향후에도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가 적극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은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자료: 관계부처 합동)

10대 투자과제	투자 규모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1조 1000억원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6000억원
취약 지역 도시 재생	1조 5000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1조 3000억원
스마트 영농 확산	1000억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7000억원
복지시설 기능 보강	4000억원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2조 3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강화	2000억원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	6000억원

* 출처: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919261>

도서관은 생활형 SOC로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유희시설과 부지, 특히 인구 감소와 통폐합 정책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도서관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를 최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교의 현황, 활용 절차 및 관련 법과 함께 도서관과 유사 분야의 폐교 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폐교 활용의 일반적 특성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체계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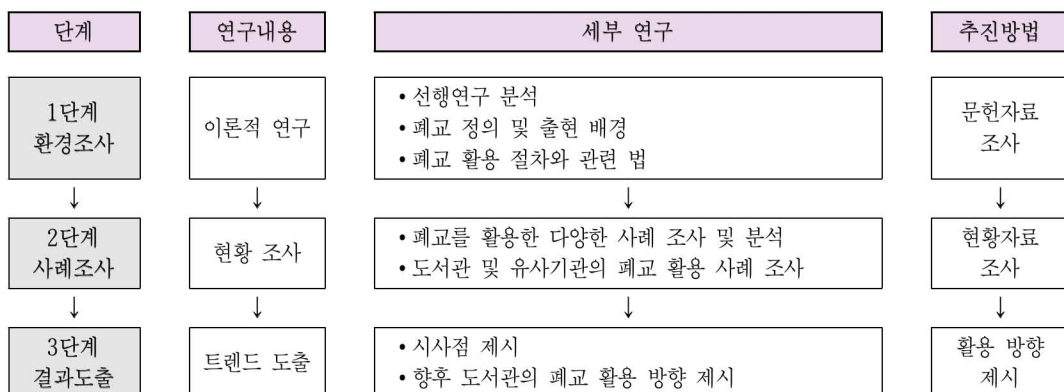
4. 폐교 활용 현황 및 활용사례

4.1 폐교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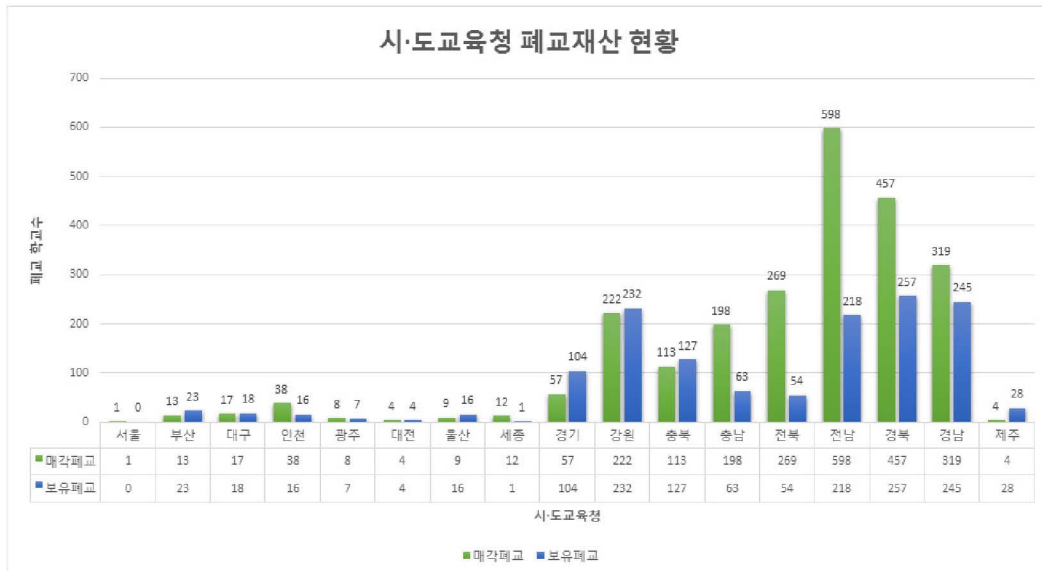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체 폐교 수는 3,752개교로 집계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폐

교재산 현황을 매각과 보유폐교로 구분하면 <그림 2>와 같다. 제주, 울산, 부산,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각폐교가 보유폐교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의 매각폐교 수는 2,339개교로 전체 폐교수의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폐교를 교육, 문화·예술 시설 재산으로 적극 자체활용하기보다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여 타 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유지 및 관리 부담을 줄이고 타 시설투자를 위한 재정확보에 주력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도 정책에서는 폐교 활용방안으로 학생야영장, 청소년수련장, 자연학습장, 마을회관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했으나 시설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각 지역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져 이후 폐교를 자체적인 활용보다는 매각 또는 임대애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정진주 외, 2000).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교를 각 교육청이 매각에 비중을 두고 폐교를 처분 및 활용하는 현황은 폐교를 매각 또는



<그림 1> 연구 체계도



〈그림 2〉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기준일자: 2018-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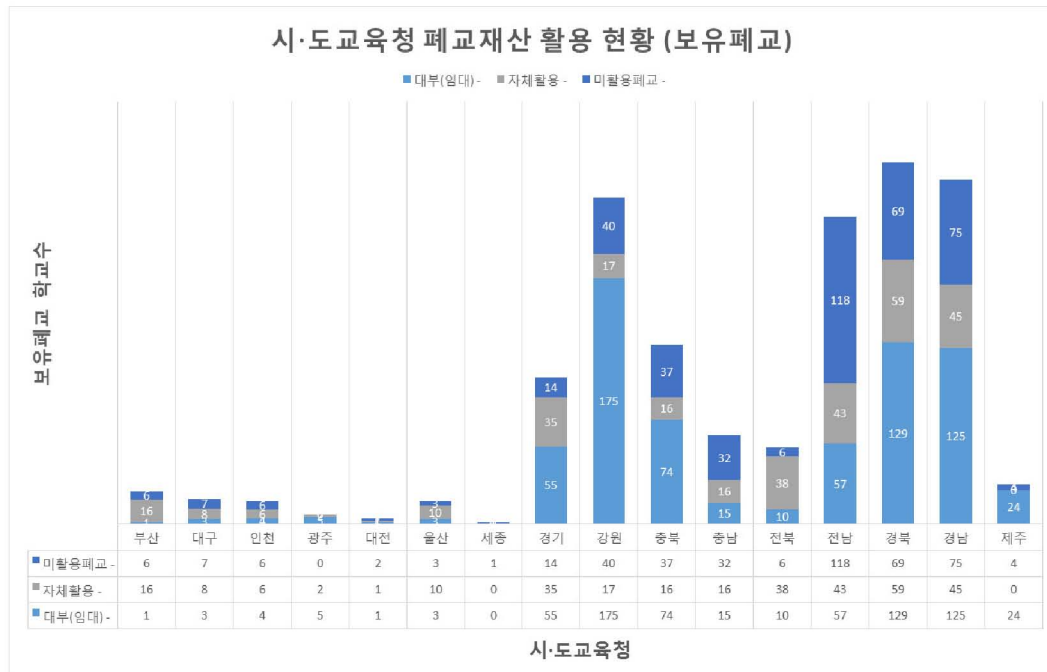
임대 시에 교육청의 재산으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를 재활용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해석·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폐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활용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천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천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38개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충청매일, 2018). 이러한 국가적 흐름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폐교 활용의 전국적·통합적 활용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 광주,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과 같은 광역시, 즉 대도시지역은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바와 같이 도단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폐교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폐교 발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지역 내에서도 도심과 구도심지역, 또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역, 쇠퇴하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보유재산에 대하여 대부(임대), 자체활용, 미활용폐교로 구분하여 폐교의 활용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유폐교를 임대(대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62%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폐교의 경우 전남(118개), 경남(75개), 경북(69개), 강원(40개), 충북(36개), 충남(32개) 순으로 많이 발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전체 폐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폐교 활용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그림 3〉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기준일자: 2018-03-01)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 현황과 비교하여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1 폐교 활용에 대한 법규

폐교 활용에 관련된 법규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99.8.31)」, 「동법 시행령(99.12.27)」이 있다.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폐교의 효율적 관리가 요청되고 있지만, 폐교의 위치, 주민여론 등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대부, 매각 등의 관리가 여전히 부진하다. 이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

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마상진, 2010).

이처럼 폐교재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해당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폐교활용과 관련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기타 재산관련 법령들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특별법 제4조 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 교육부에서는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즉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책임 하에 중앙정부의 관여사항을 없애고 운용되고 있다. 폐교재산 관련 법령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폐교재산 관련 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999.8.31. 법률 제6005호 제정, 14차 개정 • 교육적 활용 촉진, 폐교재산의 건전한 용도로의 활용 촉진과 평생교육 복지 기회 확충,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여(특별법) •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반법: 공유재산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관련 규정(시행령)
기타 재산관련 법령	• 재산과 관련된 규정만 발췌 적용
시·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 각종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제정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 자료 재구성

2007년 1월, 폐교 활용의 범위를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감액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영농조합법인, 또한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그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과 “문화 활동가와 단체,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폐교 활용 범위의 변화 및 확대는 도서관이 향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사용료 감액 대상에 해당하여 도서관이 폐교를 재활용하여 개관할 경우에 경제적 측면의 이득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폐교의 재활용을 위하여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폐교 활용의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김서용, 2013), 현행법을 기반으로 한 임대 활용 절차의 경우, 임대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시·군 교육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교의 임대 활용에 있어 주민의 의사보다 각 교육청의 결정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 또한, 폐교재산을 고치거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만료 시에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부담감을 느껴 투자를 꺼림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되며(이성섭, 2014), 여전히 폐교의 재활용에 있어 해결 및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처럼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

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적 및 제도적인 개선, 적용 규정 및 규제의 완화와 함께 폐교 활용용도 및 범위 확대, 폐교활용 절차 간소화, 폐교정보 서비스 강화, 폐교활용 보조금 지원 및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조건의 구체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폐교 이전의 학교라는 공간이 제공하던 공익적 목적을 다시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4.1.2 폐교 활용 유형 및 절차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전국 폐교재산의 통합적 관리와 함께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폐교 현황, 활용현황(처리종결, 부지만보유, 자체활용, 미활용재산, 임대 학교수), 폐교임대현황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폐교재산의 올바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각, 대부, 자체활용, 보존관리, 철거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폐교는 처리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매각·반환·교환·철거·자체활용과 같이 처리가 종결된 시설과 둘째, 교육·수련·종교·복지·기업·생산·복지시설 등과 같이 임대한 시설, 셋째, 향후 활용 계획된 시설로 분류된다.

먼저 매각의 경우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인구이동 전망, 농어촌 U턴 현상 대비 등 향후 폐교의 활용 가능성 여부와 활용 방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폐교가 장기적으로 사용가능성이 희박하고, 접근성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

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폐교 매각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올바르게 효율적인 폐교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각은 임대에 비하여 복구의 의무가 없어 시설투자, 리노베이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김기남, 2011)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폐교를 매각할 경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 및 평가되고 때문에 폐교 처리 또는 활용에 있어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반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매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매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폐교에 대하여 <표 3>과 같은 매각 절차를 통해 폐교 재산을 활용한다. 폐교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대의 경우, 폐교를 사용하고자는 임대자에게 1년에서 10년까지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부관리 폐교 선정 원칙은 첫째, 자체활용,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 중 지역주민이 매각을 반대하는 경우, 둘째, 자체활용, 보존관리 계획학교 중 활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셋째,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대부하는 경우이다(김기남, 2011). 대부 절차와 범위는 매각과 동일하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

〈표 3〉 매각 절차

연번	매각 절차		세부 내용
1	입찰 공고		• 매각대상 재산 매각가능 여부조회 • 각 교육청 홈페이지, 시·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온비드
2	매수신청 (민원인)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검토·심사	매각 가능성 검토	• 관계법령 검토 • 현장 확인 등 • 교육청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과정을 포함·명시하고 있음
4		매각 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심의 대상) •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5		공유재산관리 계획반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10억원 이상, 5,000㎡ 이상)
6		감정평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7	계약(매각) 방법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감정평가 비용 포함)
8	수의계약 또는 입찰		• 입찰참가 등록조서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정요건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9	대금 납부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0	매각		•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매각)

* 자료: 매각 및 대부 절차를 제시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정리함

로 진행한다. 임대방식은 교육부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체에 임대하는 무상임대와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임대하는 유상임대가 있다(노경식, 장준호, 2007). 그러나 임대 계약기간 이후에는 폐교 시설과 자원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임대 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 투자에 제약이 있으며, 현재 임대된 폐교 시설의 경우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으로 대부자를 제한함으로써 폐교의 활발한 재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폐교 대부 절차는 〈표 4〉와 같다.

단, 매각 및 대부는 법적 제한에 따라 교육용,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의 목적과 특성을 지닌 시설 또는 사업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위탁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미 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기타 투기 목적을 가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체활용은 교육부 산하 해당교육청에서 이용 목적에 맞게 폐교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활용의 강점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용이하며, 폐교활용의

〈표 4〉 대부 절차

연번	매각 절차		세부 내용
1	입찰 공고		• 대부재산 재산 대부가능 여부조회 • 각 교육청 홈페이지, 시·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온비드
2	대부신청 (민원인)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20일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검토·심사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현황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4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6	계약(대부) 방법 결정 및 대부료 검토·산출		• 수의계약 또는 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공시지가 1~5% - 입찰: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7	입찰 및 계약		•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정요건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대부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조서 작성 • 낙찰가 결정
8	대부계약		• 재산관리 부서에서 대부계약 체결(대부계약서 작성) • 준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9	대금 납부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0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		• 사업추진 및 소유권 이전(매각)

* 자료: 매각 및 대부 절차를 제시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정리함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의 재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실제적인 재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용기간

이나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문제와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선철, 2006).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체 활용 절차는 폐교 결정 이후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지역교육청의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체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심의한다. 이후 자체활용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해당 과와 협의 후 자체 활용한다.

그 외의 폐교 관리 또는 처리 방안으로 폐교가 노후정도가 심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개·보수비용 또는 장기적인 관리비용 총액이 철거비용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지역 등 지리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여 대부 또는 매각이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기타 시설 안전관리문제 등으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할 수 있다(김성화, 2010; 김기남, 2011) 또한, 미활용 보존은 현재 폐지된 학교의 활용 계획은 없으나 향후 몇 년에서 십 수 년까지의 장기적 시각에서 재활용의 기회와 가치가 있는 폐교를 선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경우, 철거 대상 폐교의 대지로 보존 관리하는 경우, 도시 재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기대

되는 부지, 장래 인구 유입가능성이 있어 재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향후 필요에 의해 보존·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영실, 2011; 김기남, 2011). 단, 잠종재산에 해당하는 폐교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되므로 폐교재산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여 무단점유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예방 또는 시정하고, 미활용상태에 있는 폐교재산을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김성화, 2010; 김기남, 2011).

4.2 폐교 활용 사례

폐교의 재활용은 행정, 경영, 건축, 문화·예술, 도서관,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시설과 실제 활용 사례를 정리하면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 소득 증대시설 등으로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폐교 활용 유형

연번	유형	세구분	유형	세구분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문화시설	공연시설
2		직업지원 시설		도서관
3		지역사회복지		전시시설, 문화예술공간
4		의료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문화전수시설
5	교육용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체험	공공체육시설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체육관
6		자연학습시설		생활체육시설
7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농수산물 가공/생산/저장/유통시설		직장체육시설
8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건강·의료시설	
9		관광농원사업	노인복지시설	
10		주말농원사업	숙박 및 외부교육시설	
11		농어촌 민박사업	기타	S/W 지원센터 등

* 자료: 김윤희(2010). 농촌다문화가정 복합 문화 센터 실내 공간 계획, 박경옥, 조현주, 이상운(2006).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위한 농촌지역 폐교의 리모델링 계획

폐교는 교육·수련·종교·복지·기업·생산·복지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활용되는 유형은 교육시설, 생산시설, 복지시설, 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임대 폐교시설의 세부적인 활용 현황은 <표 6>과 같다.

4.2.1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

폐교 또는 유휴시설에 대한 재활용은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P.S.1 창작스튜디오는 1970년대 범죄다발 지역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Public School One)가 문을 닫자 이곳을 현대 미술작가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로 개조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명소로 변신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의 우파파브릭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폐허가 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생태마을로서 문화센터, 연극공연장, 야외무대, 스튜디오, 춤 교습소, 체육관, 카페, 레스토랑, 유기농 식품점, 게스트하우스 등이 갖춰져 있다. 영국의 경우도 1995년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가동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통해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퍼플릭 프로젝트, 놀이공간, 테마별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중 특히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선행한 일본이 빈번하게 발생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일본은 폐교의 주원인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보았으며 저출산, 핵가족화 현상을 맞이하여 일본의 학령기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부터 폐교 자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폐교시설의 실태와 유효활용상황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폐교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수행한 폐교 관련 조사에서는 매년 400~500개의 공립학교가 폐교되고 있고, 약 70% 만이 사회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0%의 폐교 시설과 부지는 활용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폐교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래를 향한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수속을 간소화시켰으며, 타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영비 등의 보조 제도를 소개시켜 주고 있다(이동준, 2017). 이처럼 일본 정부는 민간 활용을 적극 장려하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성공적인 폐교 활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지금까지 일본의 폐교 활용사례를 개괄해보면 사무실·공장,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체험학

<표 6> 임대 폐교시설의 활용 현황(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0)

폐교 활용	대 부(임대)								계
	교육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기업시설	생산시설	복지시설	기타	
학교수	242	76	8	91	13	106	104	190	830

〈표 7〉 일본의 폐교재산활용 사례

연번	활용사례	내 용	
1	노지마 스코라 (scuola)	위치	• 일본 효고(兵庫)현 아와지시마(淡路島)
		활용	• 2010년 문을 닫은 학교를 단장해 만든 복합시설
		특징	• 이탈리아어로 '학교'라는 의미를 지님 • 이탈리아 레스토랑, 뮤직쇼 홀 등이 입점해 있음
2	사사야마 어린이 박물관	위치	• 사사야마(篠山市)시
		활용	• 자연 속에서 세계의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도시 외곽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 만듦
3	기타노(北野) 공방마을	위치	• 고베(神戸)시
		활용	•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폐교된 100년 역사의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인기 명소로 탈바꿈시킨 곳
		특징	• 일본 술과 빵 등을 살 수 있고 다양한 공예 체험도 즐길 수 있음
4	3331 아트 지요다 (3331 Arts Chiyoda)	위치	•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
		활용	• 예술인들이 주도해 만든 대안예술공간
		특징	• 학교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술작품 판매나 전시 공간으로 활용 중
5	세타가야구(世田谷) 만들기 학교	위치	• 일본, 도쿄, 세타가야
		활용	•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을 만들기 위한 교류·업무공간으로 쓰임
		특징	• 창작공간 외에 갤러리, 카페 등을 갖추고 있음
6	구릿세이(立誠) 초등학교	위치	• 교토 중심가
		활용	• 학교라는 장소성을 토대로 취미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어른의 학교'로 활용 •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특징	• 아치형 현관 등 1928년 지어진 건물 대부분을 보존한 채 활용
7	오이시학교	위치	• 본 나가노현은 일본 혼슈(本州) 중앙부 산악지대를 차지하는 산존으로 20년 전에 폐교된 초등학교 공간
		활용	• 지역농산물 판매장, 온천 및 숙박시설, 밀을 이용한 제빵공방, 박물관, 식당 등 6개 분야를 중점 운영 중
		운영	• 폐교의 건물과 토지는 '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자본금은 4,500만 엔 중, 62%를 '시'가 보유함 • 폐교를 '오이시 학교'로 만들 당시에는 필요한 시설개보수비 4억3천만 엔을 국가·나가노현·시에서 보조를 받음. • 이후 시설 개보수 비 중 50만 엔 이상은 시에서 보조,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시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음
		특징	•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각종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줌 • 연간매출액은 1억7,000만 엔, 연간 10만 명의 외국인 방문하며 매출액의 1%정도 흑자로 운영됨 • 일본의 성공적인 농촌폐교 운영사례로 알려짐 • 취업인원: 24명, 인건비 매월 400만 엔(이중 계약직 11명을 포함) • 농촌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게 특색이라 할 수 있음
8	교토예술센터	위치	• 교토부
		활용	•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창작자(예술인)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운영	• 시민이 아닌 재단의 형태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 시와 문화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재)교토시예술문화협회는 자문기관인 평의회, 운영방침의 수립 및 사용자 선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무상대여 방식으로 창조활동을 위한 제작실(젊은 예술가들이 입주해 3개월간 이용가능), 강당, 카페, 자유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창조활동지원 및 지역과의 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징	• 문화와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교토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학교인 폐교(1993년 폐교가 메이린소학교)를 문화적으로 재생시킨 사례 • 문화도시라는 교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지역사람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증대되고, 국제교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음

연번	활용사례	내 용	
9	게이노카덴샤 (Geinokadensha)	위치	• 도쿄, 신주쿠 구
		활용	• 게이단쿄(Geidankyo)측에서 단순 임대 형식으로, 월 약 300만 엔의 임대료를 지불(시설의 노후성을 감안하여 30%이상 할인)
		운영	• 임대 및 계약 등은 문화담당부서와 총무부 계약관계에서 담당하고 있음
		특징	• 임대 결정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희망하는 지역주민회의 의견 때문에 마찰이 있었지만, 지역민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자체는 어린이날과 같은 특정일에 시설 전체를 개방해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열거나, 지역축제 등에 적극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게이단쿄에서는 시설을 산하 단체에 사무실로 임대해주거나 교실을 연습실 혹은 TV 촬영장으로 임대해 수입을 얻음
10	도쿄 신주쿠 오모짜미술관	위치	• 동경 시내 중심가에 소학교(요츠야초등학교, 1935년에 지어짐) • 도쿄 <요츠야 3초메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활용	• 시민단체, 대학, 동경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도쿄 신주쿠 오모짜미술관(체험형 미술관)로 활용, “보고, 만들고, 노는” 장난감 왕국
		공간	• 1층: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휴게실이 있음 • 2층: 전시 및 체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입, 실험실은 아이들 체험공간으로 쓰고 있으며, 층별로 구성되어있는 전시실과 장난감 테마 방에는 세계 각국의 기발한 아이디어장난감이 있음 • 3층: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 게임(놀이) 공간, 전시중인 장난감 구입할 수 있는 뮤지엄샵으로 구성
		운영	• 구청은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전원에게 나무 장난감을 선물로 주는데 장난감 재료인 나무는 구(區)와 자매결연한 나가노현에서 전부 공급받고 있음 • 장난감의 사용법과 아이와 노는 법을 연수받은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장난감미술관을 이끌어 가고 있음 • 주민 기부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에 지역의 대학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 참여함
		특징	• 폐교를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돌려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 •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는 나무 장난감들이 전시되어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활용사례 • 장난감미술관이 있는 신주쿠구는 <Wood Start>실천구역으로 지정됨 • 원래 있던 초등학교 교실을 교체하지 않고 조금 수리하여 활용함 • 각 층마다 또는 각 교실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 • 강사들은 주로 예전에 학교에 재직했던 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시켜 유아교육업계 관련종사자들에게 현장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참여도가 높음
11	쿠라테 학원 (くらて學園)	위치	• 후쿠오카현 쿠라테마치(福岡縣鞍手町) • 2015년 3월에 쿠라테미나 미중학교(鞍手南中學校)는 폐교
		배경	• 관할 부서인 쿠라테마치 교육위원회와 쿠라테마치 지역진흥과에서는 폐교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 불가능
		활용	•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코스프레, 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을 폐교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짐
		운영	• 내각부에서 개최한 '지역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2015년 11월 최종 선정되어 총 6750만 엔(약 7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이벤트 개최를 위한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 등에 총당하고,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합동회사를 발족시킴 • 연간 운영비: 약 400만 엔, 대부분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 • 지자체에서는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 • 방문객의 입장료 및 매점 이용비, 자판기 수입, 사진첩 제작비, 코스프레 유니폼 및 도구 대여료 등 각종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은 상근 2명과 비상근 3명으로 구성됨(이벤트가 있는 날은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음)
		특징	• 쿠라테마치의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빵, 도시락 등의 각종 음식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음 • 이벤트 초기에는 코스프레 문화에 생소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지자체 및 쿠라테 학원 운영진에서 '마을에는 전혀 피해를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각 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주민들은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됨

* 자료: 감자꽃 스튜디오(2006.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예술경영지원센터(2007)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습·숙박시설, 교육 시설, 특산물 판매·가공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예술분야의 인재육성, 창조지원 등의 시설 또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지역에 밀착한 사업,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지역에 개방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의 폐교 활용은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시설과 특산물가공장, 농촌체험 시설 등 소득증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고령자를 위한 교육시설과 지역 특성을 살린 디자인 관련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채경혜(2011)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와의 차이점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본 폐교의 특징은 평균적으로 학교가 폐교 처리된 지 2년 이내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모델이 구축되어 폐교의 발생 시점에서 자원의 재활용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적다는 게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은 건물의 노후나 훼손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폐교 재활용 사업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폐교활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은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과 재구축된 폐교 공간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셋째, 일본의 폐교들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재생계획추진, 보조금반환면제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폐교의 재활용 형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사업 권한을 위임 받음으로써 지역 내 폐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운영주체의 재정 자립도가 우선시되어 폐교 개보수 등 초

기시설 비용 및 관리비용은 전적으로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관계로 수익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 정부와 문부과학성은 폐교자원 재활용 기획, 홍보 마케팅, 폐교자원 재활용 가능성 소개 등 폐교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 의지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차별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폐교들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재생계획추진, 보조금반환면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2.2 도서관 및 유사 분야 활용 사례

도서관 및 유사 분야 활용 사례 선정의 경우, 2016년 6월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폐교활용 우수사례 자료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사례를 수집 및 조사하여 제시하였다(〈표 8〉 참조).

국내의 도서관 및 유사 분야 활용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폐교 활용의 방향은 첫째, 문화, 독서, 휴식 등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요구, 지적 욕구 등을 충족하며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네덜란드의 도서관은 생활과 같이 연계되는 도서관, 즉 시장과 구분이 없거나 관공서와 같이 병행하는 등 주민들의 삶속에 도서관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도서관 운영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폐교를 새로운 시설 또는 사업을 재활용할 때 폐교 시설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폐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표 8〉 도서관 및 유사 활용 분야 사례의 비교 분석

도서관명	2·28학생도서관	책마을 해리	맥타가트 도서관
활용	- 대구시교육청, 동구, 신암중학교 - 대지면적 1만4천659㎡ - 연면적 6천808㎡, 지상 4층 2018년 1월 개관 -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특화도서관으로 운영	전북 고창군 해리면 라성리, 나성초등학교(2001년에 폐교)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운영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자	학교를 세웠던 이규택 살림자의 후손이 매입	1박에 3만원(전기 사용료 포함)으로 시설이 운영
공간	1층: 어린이 열람실, 유아실 2층: 청소년자료실 3~4층: VR체험실, 청소년 체험활동실, 평생교육실, 시청각실로 리모델링 - 국가기념일인 2·28민주운동과 관련된 체험실, 시청각실, 기념비 등 역사적 자료 전시	도서관과 함께 책 박물관, 책 공방, 자료관, 방문자 숙소 등으로 구성됨	1층: 도서실(도서 6000여 권 비치), 연구실, 샤워실, 다목적실 등 2층: 갤러리, 전문 화가의 작품 30여 점을 상시 전시 - 운동장을 캠핑장, 미니 동물농장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음
특징	-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학교 독서교육을 집중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 독서생활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관 -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증진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을 목표로 운영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복합문화공간) 책숲시간의숲, 바람 언덕, 종이숲, 버들눈작은도서관, 책감옥, 마을사진관, 한지공간과 활자공간, 마을책방이 있어 출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 통세프, 청소년독서문화캠프, 청소년인문건축학교, 책영화학교, 책마을출판캠프, 북스테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출판캠프) 고창의 생태(갯벌, 염전), 문화(고인돌, 판소리, 동학), 역사, 예술을 체험한 후, 책으로 엮는 프로그램	(독서와 캠핑장의 만남) 공주 북캠프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음 (유사 사례) '공주 북캠프'는 기존의 폐교 활용한 힐링 여행지로 리조트 겸 도서관으로 조성·운영됨
도서관명	지혜의 바다	책읽는 별난독서캠핑장	평창 감자꽃스튜디오
활용	- 경남 창원시 - 구암중학교 체육관동 활용 - 개관일: 2018년 4월 - 면적: 2666㎡, 지상 3층	- 과주시 법원읍 금곡리, 금곡초등학교 - 부지 9,414㎡ - 건축 1,017.9㎡ 2016년 12월 조성, 개장준비와 시범운영 이후 본격 운영	- 매각 형태 - 강원 평창군, 평창초등학교 노산분교 - 부지 3,856㎡ - 건물 766.91㎡ 2004년부터 운영
운영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공사와 도서 구입에 40억 원이 들음	- 국민디자인단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폐교 우수 활용 사례로 주목받음 2015년 경기도 공공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임	- 예산지원처: 평창군청, 강원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 평창군청은 2004~2013년 개조 사업비 3억5천만 원, 간이상수도 추가 설치 공사비 6천만 원, 주변 부대시설 정비 2천만 원,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문화예술포육지원비 1천700만 원, 화장실 보수비 2천500만 원 등을 지원함
공간	1층: 책을 놀이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동화방, 레고방, 보드방, 웹툰방, 상상창작방(직업체험), 힐링방으로 구성 2층: 카페로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 공연 강연 전시와 같은 문화활동 공간으로 구성 3층: 리딩플러스존(기존의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성)	- 폐교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캠핑사이트 23면과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독서공원 등으로 조성 (학교운동장) 잔디 광장으로 꾸며 별자리캠프, 보름달 음악회,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장소로 활용	1층: 취사, 식사, 휴게시설인 이중옥 키친, 옛 분교의 흔적과 물품을 모아둔 노산분교박물관, 문화와 자연, 농촌을 주제로 한 도서관, 사무실 겸 권역센터인 교무실 2층: 극장 겸 스튜디오, 교장실, 소사실, 숙직실, 건물 전면에 마을홍보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갤러리조성(마을관련 작품과 안내물 전시 및 특산물의 홍보와 각종 마을행사의 공간으로 쓰임)

도서관명	2·28학생도서관	책마을 해리	맥타가트 도서관
특징	• (독서문화복합공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 레고방, 보드방, 웹툰방, 동화방, 카페, 전시, 문화공간 한 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 • (새로운 독서공간) 기존에 도서관, 독서공간이 가지고 있는 조용히 책만 읽거나 자습실 등의 이미지와 틀을 깨고 과감히 도서관의 과감한 공간 변화 시도 • (도민독서운동)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 오게끔 만드는 시스템, 공간들마다 책이 있는 장소를 통한 도민독서운동 확산, 독서가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 (벤치마킹) 국내의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을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장서량) 10만권 정도의 책이 소장	• (독서와 캠핑) 독서와 캠핑을 접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캠핑, 자연을 하나로 아우린 캠핑장 • (대상에 맞춘 독서/캠프 프로그램)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기업, 동아리 등을 위한 단체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동화속 캠핑(어린이), 북스카우트(초등학생), 진로독서 프로그램 및 생생 클래스(중고생), 책읽는 워크샵(기업과 성인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화자원 및 지역경제) 마을 콘텐츠 발굴과 지역주민 소통을 위해 책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며, 마을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독서캠핑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독서바람열차, 평화도서관, 자운서원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파주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 (연계) 기존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해 독서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지역경제) 공간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감자꽃스튜디오가, 숙박과 식사 및 체험은 지역주민이 담당함으로 문화공간과 마을자원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및 지역경제의 기여에 노력 • (커뮤니티)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권역본부로도 같이 활용 • (복합문화공간) 건물을 재생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 (주민의 문화교육공간)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 • (지역예술) 마을달력과 전통예술 아카이빙, 지역예술가의 공연과 전시, 음반과 출판 등도 기획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공간으로 활용 • (관광) 방문객과 단체에게는 워크숍과 탐방, 체험공간 등의 장소로 이용 • (자문과 연구 및 교육 수행)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문화기획과 예술교육, 문화공간, 지역축제, 재래시장, 농촌관광, 마을개발, 문화복지 등의 분야 • (사회공헌 사업) 기업과 함께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음 • (지역 사업) 지자체와 문화원,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기관과 단체의 관련 정책과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폐교의 지역 주변 환경과 위치 등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한 새롭고 과감한 공간의 연출,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독서캠핑, 카페, 미니 동물원 등과 함께 휴식을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처럼 폐교를 도서관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시도할 수 없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도민독서운동, 도서관 이미지 개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축제, 문화, 농산물, 특산물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에 부가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도서관이 지

역명물 또는 지역의 관광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폐교를 활용한 시설 또는 공간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의 중심점 역할과 지역주민의 공간으로서 활용된다는 점이다.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권역본부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 역할로도 활용이 된다. 일본의 경우는 폐교 재활용 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폐교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은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과 재구축된 폐교 공간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해

당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폐교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

최근 경남교육청의 창원시의 지혜의 바다에 이어 김해시에도 복합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이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강점을 인정을 받으며 도서관의 폐교 활용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폐교 활용사례로 보면, 예술가들의 작업장, 공장,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학원, 자연학습체험장, 버섯재배, 하우스재배,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교가 위치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재활용 계획과 방안에 따라 노인, 사회취약계층, 학생, 작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폐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 자리할 수 있어 그 활용성과 재이용 가치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폐교의 선정과 활용 시설의 성공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지원, 지역주민의 반응과 참여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친화적 공간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이 폐교 활용 시에 고려할 수 있는 활용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세계 제1위로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이면에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일본의 쿠라테 학원처럼 일본 내 인기 있는 코스튬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할 수도 있으며, 지역 특산품, 농수산물 등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상평민속학교는 입소생들의 급식소에 지역 특산물을 홍보·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도시민의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골의 일손 부족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며,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경남의 지혜의 바다와 같이 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됨으로써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5.2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친화형 공간

폐교는 학교가 갖고 있던 공간적, 교육적, 지역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모두 계승한 공간이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폐교 공간은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차원으로 변모하여 생활권 단위의 문화·교육기반 등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폐교는 필연적으로 지역 공공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재활용된 시설은 폐교 이전의 학교 시설의 취지와 목적과 유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폐교 활용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게이노카덴샤는 임대 결정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희망하던 지역주민회의와 마찰이 있었지만, 지역민과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지역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특정일에 시설 전체를 개방해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의 폐교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태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5.3 노인복지요양, 귀농 생활 등가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 활용 사례를 통해 폐교와 노후 생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형 노인복지요양 및 농어촌 활성화를 지향할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귀농 생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사사례로 '온비드'와 같이 글램핑장과 옛 상여를 전시한 전통민속상여박물관으로 거듭난 폐교는 연간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부여군 세도면의 전체인구의 37%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접어들어 따라 폐교한 인세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세도노인대학'을 설립하였다. 세도노인대학은 건강, 취미, 자기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해교실, 서예반, 목공반, 요가교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노인대학을 구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를 통한 특용작물 시범 단지 조성, 청·장년 일자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전을 통한 시설,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의 흡수, 저렴한 비용 또는 입주 비용 분담을 통한 실버타운 형태의 시설 활용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폐교와 노후 생활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 특화 도서관과 함께 노인을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둔 복합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4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폐교의 위치적, 공간적,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바라키현 카와치마치는 농업 중심 마을로 젊은층이 할 일이 감소하는 것을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2025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이바라키현 카와치마치에서는 드론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아리로보틱스사에 옛 가나에즈중학교를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해 일본 내 최대급의 드론 복합시설을 오픈했다. 규제가 엄한 도시보다 도심에서 80분 거리에 있는 옛 교실을 활용함으로써 실내에서의 드론 개발 실험과 야외에서는 상공을 10km 왕복할 수 있는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기업 측면에서는 드론비행에 적합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드론을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리한 폐교를 활용한 비즈니스 또는 도서관은 도심의 상업부동산보다 절대 비용 절감, 방대한 토지와 건물 활용 가능(이벤트 대회장, 숙박시설 기능), 자연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근무(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지자체의 지원(보조금제도 등), 지방의 우수한 인재 채용 용이, 폐교활용 우수사례로 매스컴 소개 기회 많음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다. 동시에 최근 캠핑장, 휴양시설 등으로 폐교가 변화함으로써 친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의령군의 궁류면 의동중학교도 2008년 폐교되어 2017년 '거장산 가족 휴양시설'로 탈바꿈하였으며, 삼척시는 폐교를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인 '삼척미로정원'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 총사업비 17억6,300만 원이 투자되었다. 정원은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1권역은 옛 두타분교를 리모델링하여 향토 식당, 야생화 체험장, 두부체험장, 찻집 등이 있으며, 기존 운동장에는 연자방아, 야생화정원, 수목정원, 야영장, 투명카누, 방갈로 등을 조성하였다. 제2권역은 통방아 정원으로 물레방아, 통방아 연꽃 연못으로 조성됐으며, 1권역과 2권역으로 이어지는 마을 안길은 농촌모습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했다. 삼척미로정원은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주민 일자

리창출에 이바지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은 캠프장, 전통문화 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거나, 민간, 기업, 대학 등을 통해 임대, 매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또한 폐교와 같은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지역 친화적이며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축되었다. 따라서 폐교는 각 지역에 중심 지역 내지 주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폐교의 현황을 놓여준 지역에 다수 있으며, 대도시에 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녹색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폐교가 위치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유무와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폐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입지조건, 넓은 부지와 폐교활용 촉진법이 가지고 있는 이점 활용 등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또는 건강과 관련된 특화 도서관 또는 서비스를 복합시설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폐교의 친환경적 특징을 활용한 도서관은 자원 또는 재상 가능 자원의 최대 활용, 물 및 에너지 사용 감소, 도서관 건물 및 부지 설계시 나무와 초목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녹색 도서관(Noh & Ahn, 2018)과 같은 친환경적 도서관을 실현할 수 있다.

5.6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폐교는 혁신적·도전적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 혁신적인 형태의 공간,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은 폐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여 공간적인 측면과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재창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캠핑장과 도서관의 조화, 경남 교육청의 지혜의 바다처럼 레고방, 보드방, 웹툰방, 동화방, 카페, 전시, 문화공간 한 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의 장점은 도서관을 통한 지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들이 같은 공간에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증진시켜줌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최근 도서관은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한데 모은 공간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5.7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폐교의 발생 지역은 사회, 경제, 인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특정 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교를 적극 재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 주제 등에 특화시킬 수 있는 용이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가 부족하다면 도서관과 함께 폐교를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자꽃스튜디오는 문화기

획, 문화공간, 문화복지, 예술교육, 지역축제, 농촌관광, 재래시장, 마을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과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함께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기존 상업부동산을 활용한 문화시설보다 폐교를 활용함으로써 각 지역주민마다 다른 문화적 욕구와 요구를 맞춤형으로 문화시설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전시장, 교육시설 등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학생,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이 문화, 교육, 체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폐교의 위치는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 등 대안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폐교는 소외계층,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을 계획 될 수도 있으며, 2.28학생 도서관과 같이 학교 독서교육을 집중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 독서생활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개관될 수도 있으며,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폐교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활용 공간과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과 이용,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실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를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폐교를 활용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폐교를 새로운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마을이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노력이 아닌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간의 협동을 전제로 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의 국가적 문제에 따른 지역 간의 인구의 분포 격차,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신설 대체 학교 이전,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 공간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계는 폐교에 어떠한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으며,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1 결론

도서관에서 폐교 활용에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처음 학교를 조성할 때는 대지 선정과 경관은 신중하게 고려 및 선정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좋은 입지에 도서관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수, 위치, 교통, 지역사회의 요구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폐교의 위치는 지역주민의 필수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교의 재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는 지역주민이 돌려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 문화센터와 같이 문화 시설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 폐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공간의 연출이 가능하다. 즉 레고방, 보드방, 웹툰방, 동화방, 카페, 전시, 문화공간 한 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데 비용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현재 도서관은 캠프장, 전통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거나, 민간, 기업, 대학 등을 통해 임대, 매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또한 폐교와 같은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폐교 활용 사례를 통해 폐교와 노후 생활의 연계하여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다. 폐교 활용을 통해 자립형 노인복지요양과 함께 농어촌 활성화를 지향할 수 있다. 도서관 외 폐교 활용 사례에서는 폐교를 노인복지·요양, 귀농 생활 등과 연계하여 공간을 재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폐교와 노후 생활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 특화 도서관과 함께 노인을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둔 복합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세도노인대학과 같이 건강, 취미, 자기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 여주의 생태유기농 학습장을 들 수 있다.

넷째, 폐교라는 건물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게이노카텐사의 경우도 임

대 결정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던 지역주민회의 의견 때문에 다소간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섯째, 폐교 발생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즉 지역 내 결핍된 요소를 보완하고 충족해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 주제 등에 특화시킬 수 있는 용이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외 계층,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을 계획 될 수도 있으며, 2.28학생 도서관과 같이 학교 독서 교육을 집중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 독서생활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개관 될 수도 있으며,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일본 사례 중 지역 특산물, 농수산물 등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인기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태어나는 등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제언

본 연구는 폐교활용 현황과 사례 연구를 통해 폐교를 활용한 공간 또는 시설은 폐교 자체의 공간적, 지역적 강점과 이점을 통해 기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함께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의 새로운 서비스와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이 향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친화형 공간, 노인복지·요양, 귀농 생활 등가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총 8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구체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 모델링 구축, 폐교시설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 가능 기반 형성 등의 구체적인 폐교 활용방안 모색, 지역의 규모 또는 특성별 폐교의 형태, 활용 사례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에 대한 재활용, 임대료, 계약, 임대 이후 폐교재산 관리 강화 등의 문제가 폐교 활용에 있어 남아 있으며, 폐교 재활용의 참여 주체로서 법·제도적 체제의 정비, 운영인력의 전문화, 시설 및 공간의 독립화,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강화 등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민, 강인철 (2000). 지방폐교시설의 노인요양시설 활용가능성 연구: 진주시 근교 폐교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0(3), 197-210.
- 권영현, 이인배, 김경태, 권미정 (2012). 충남 농산어촌 폐교의 실태와 활용성 제고 방안.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김기남 (2011). 폐교의 처분과 활용. 석사학위논문, 경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김성화 (2010). 전라북도 초등학교 폐교시설의 지역특성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 김윤희 (2010). 농촌 다문화가정 복합문화센터 실내공간 계획: 폐교재산 활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실내설계전공.
- 김재영, 이종국 (2012). 사례조사를 통한 폐교 활용 노인요양시설의 공간 분석. 2012년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3-98.
- 김흥기 (2017). 한국과 일본의 농촌지역 폐교활용 정책 비교.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9(3), 1-8.
- 김홍열, 임영환 (2016). 폐교를 활용한 기숙형 중학교 공간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248-1251.
- 노경식, 장준호 (2007). 도심(都心) 폐교시설(廢校施設) 활용방안(活用方案)에 관한 연구-(구) 수도여고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을 중심(中心)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2(2), 145-164.
- 도현학 (2011).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폐교시설의 활용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3), 91-98.
- 마상진 (2010).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의창 (2018). 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공학과.
- 백선학 (2013). 폐교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 현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53-60.
- 변경화, 강은정, 유창균 (2015).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6(2), 111-119.
- 신상섭 (2000). 농어촌 지역 폐교지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3(1), 31-38.
- 오원진 (2013).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 이선철 (2006). 폐교의 개념과 활용 현황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서 폐교활용방안 포럼, 2006 문화예술교육 포럼.
- 이성섭 (2014).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경상남도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 이영실 (2011).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 이응구, 남윤철 (2010).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평면유형 개발. 한국디지털건축 인테리어학회 논문집, 10(3), 38-45.
- 이주일, 이택호 (2017). 폐교시설의 자연순환형 복합 체험학습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 문화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2), 1-9.
- 이화룡 (2018). 국내 폐교 현황 및 활용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교육시설, 25(5), 7-12.
- 임환수 (2005). 폐교시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장우석, 정남수 (2013). 농촌폐교 활용 정책수립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접근성 평가-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농촌계획, 19(4), 293-306.
- 전영도 (2008). 폐교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 정진주, 박승렬, 김승근, 최효승 (2000). 충북 미활용폐교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 건축학회논문집, 2(2), 23-34.
- 조성찬 (2006).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법학과.
- 조정민, 신지은 (2014). 지역 공공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11, 123-152.
<http://doi:10.15299/tjl.2014.04.11.123>
- 허성훈, 이종국 (2012). 폐교시설을 활용한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99-104.
- Noh, Y., & Ahn, I. J. (2018). Evaluation indicators for green libraries and library eco-friend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8(1), 51-77.
<http://doi:10.5865/IJKCT.2018.8.1.051>.

[웹사이트]

- Landscape Times (2017, June). 삼척시, 폐교 활용해 '삼척미로정원' 개장. Retrieved from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44>
- 경남교육청폐교활용안내센터 (n.d.). 폐교재산활용 안내. Retrieved from
https://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25007000000
- 경북신문 (2018, April). 대구교육청, '2·28기념학생도서관' 첫 삽. Retrieved from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05389
- 국민일보 (2017, July). 파주시, 폐교 활용한 '별난독서캠핑장' 21일 개장.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21179>
- 뉴스원 (2017, November). 의령군, 폐교돼 방치된 시설 '가족휴양시설'로 바꾼다. Retrieved from

- <http://newsone.co.kr/?p=5766>
- 매일경제 (2014, August). 텅 빈 폐교 활용해 연간 '5억원' 매출.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22585>
- 아르떼365 (2006, December). 현실에 기반한 일본의 폐교 활용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Retrieved from <http://www.arte365.kr/?p=4111>
- 용인시민신문 (2007, December). 도시재생 개발보다 문화가 중심돼야. Retrieved from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8>
- 용인시민신문 (2007, December). 유휴공간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Retrieved from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4>
- 중앙일보 (2018, August). 생활SOC 이름 붙였지만, 문 정부도 결국 SOC로 경기 부양.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2919261>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n.d.). 폐교정보. Retrieved from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 채경혜 (2011, December). 워크샵-폐교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일본도시들의 사례.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id=1NAZf&fldid=jof2&datanum=30
- 충청매일 (2018, August). 2021학년도에 전국 38개 대학교 폐교 전망. Retrieved from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30>
- 충청메시지 (2018, May). 부여군, 폐교가 노인대학으로 부활. Retrieved from <http://www.ccmes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3352>
- 한국금융 (2014, August). 폐교를 드론 개발 사업장으로.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22585>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Sun Hak (2013). Th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23(1), 53-60.
- Byun, Kyeonghwa, Kang, Eun-Jung, & Yoo, Changgeun (2015). A study on space planning of accommodations for experiential activities by remodeling closed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2), 111-119.
- Chang, Woo Seok, & Jung, Nam Su (2013). Green tourism accessibility evaluation for policy making of rural closed school: Case by Chungcheongnamdo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293-306.
- Cho, Chan (2006). Legal consideration on the use of property in closed school. Master's thesis,

- Daejin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 Cho, Jung-Min, & Shin, Jie-Un (2014). Local publicness and locality-extension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publicness concept viewed through problems of closed school. *The Journal of Localitology*, 11, 123-152. <http://doi:10.15299/tjl.2014.04.11.123>
- Do, Hyun-Hak (2011). A study on use the closed school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village: focused on Gyeongbuk area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13(3), 91-98.
- Heo, Sung Hoon, & Lee, Jong-Kook (2012). A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by remodeling closed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 99-104.
- Jeon, Young Do (2008). A study on the wsing methodology for closed school fac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Real Estate.
- Jung, Jinju, Park, Seungryeol, Kim, Seunggeun, & Choi, Hyoseung (2000). The analysis of presernt condition and utilization planning of closed school in Chungbuk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2(2), 23-34.
- Kim, Hong Kee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utilization policy for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9(3), 1-8.
- Kim, Hong-Yeol, & Lim, Yeong-Hwan (2016). Study of boarding middle school's space analysis using closed schools.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nference Proceedings*, 1248-1251.
- Kim, Jae-young, & Lee, Jong-kuk (2012). An analysis of the space as a closed school and nursing home by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93-98.
- Kim, Kinam (2011). Disposal and use of closed school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 Kim, Sung Hwa (2010). Study on reuse method of the closed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Jeollabuk-d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in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 Kim, Yunhee (2010). A design for the community center of an agrarian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the use the abolished school faciliti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 Kwon, Young Hyun, Lee, In-bae, Kim, Kyung-tae, & Kwon, Mi-jung (2012).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Chungnam Province. Gongju: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Kwon, Young-Min, & Kang, In-Cheol (2000). A study on a proposal for the utilization of

- neglected rural school buildings as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97-210.
- Lee, Hwa-Ryong (2018). The status and application cases of closed schools, expecting the new horizons. *Educational facilities*, 25(5), 7-12.
- Lee, Ju Il, & Rhee, Taik Ho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ctivation of closed school facilities with the use of natural circulation typed complex experience center.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17(2), 1-9.
- Lee, Seon Chul (2006).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closed schools, *Forum for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as community arts education space for local residents*.
- Lee, Sung Sup (2014).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closed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Major in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 Lee, Woong-Gu, & Nam, Yun-Cheol (2010). A case study on the remodeling plan of closed school as elderly facility and developing composition type.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Interior Association*, 10(3), 38-45.
- Lee, Young Sil (201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for community arts & culture through the closed-school-network: focusing on the case of PyeongChang county's closed-school-network.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Planning.
- Lim, Hwan Soo (2005). Design of alternative schools using closed school fac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 Sang-jin (2010). How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Closed Rural Schools, Naju: Korea R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Noh, Kyoung Sik, & Jang, June Ho (2007). A Study on the reuse of abolition of school facilities in the downtown areas: focused on the case of Soo-Do Girls' high school. *Journal of Korea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2(2), 145-164.
- Oh, Won Jin (2013). A research on ways to use fortune left from abolished schools: focused on Chungcheongbuk-D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in Education Fac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 Park, Eui-Chang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losed schools between Korea and Japa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hin, Sang-Sup (2000). A study on the application program of abolished school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3(1), 31-38.